

##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개혁요소 연구

### Elements of reforms in national defense to create stable environment for the future defense

정 정 균\* · 박 철\*\*

Jung, Jung Kyun · Park Cheol

#### 요 약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 국방개혁, 국방정보화, 국방연구개발, 군 구조 개편, 병영문화

## 1. 서 론

국방부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고자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단·중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방위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개혁의 대상의 선정을 시작으로 기획·계획·집행 등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를 파악하고 각 이를 통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자주국방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정보화 분야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에 부응하여 지식관리

\* 정희원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jkjjk0@naver.com

\*\* 정희원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bigdasom@daum.net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방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을 늦추거나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대세이다(조용갑, 2001) 나아가 우리 군은 미래정보전/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국방획득 및 자원관리에 관하여 자동화 및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 전시 및 평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둘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전력분야의 정보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컨대 국방부 혹은 합참 등에서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기능과 조직 등을 정비하고 정보환경 변화에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전력분야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정보화 역시 군 인적자원이 그 중추적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효율적으로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군 대내외적 전문인력을 활용 및 양성하고 이를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 2.2.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우리 군은 ‘21세기 신국방’을 모토로 디지털·네트워크전, 정보·사이버전과 같은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 및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화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을 건설함으로써 미래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종진, 2004)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국가안보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글로벌적 방위산업 환경이 양적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주로 한 질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아래 민간의 첨단 신기술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방 방위분야에 안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국내 방위 산업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 2.3. 군 구조의 개편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는 가운데 미래의 군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 및 각 군의 본부와 군사혁신기획단이 참여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분석과 군사운용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 구조가 개편되었을 때 우리 군은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 할 수 있다 하겠다.

## 2.4 새로운 병영문화 창달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전쟁에 관한 패러다임은 필연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사 개개인의 직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병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상황판단능력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병사 개개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병영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따라서 군은 즉각 시행이 가능한 단기적 과제와 시험 적용 및 보완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병영문화 창달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결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했다.(국방부, 2014)

이렇듯 오늘날 중장기적 국방개혁이 실현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국방개혁 요소를 선정하였다.

(1) 미래정보전/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의 정보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기능과 조직 등을 정비, 국방획득 및 자원관리에 관하여 자동화 및 정보화 환경을 구축, 군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2) 국방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하여 민간의 첨단 신기술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방 방위분야에 안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3) 군 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미래의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분석과 군사운용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 구조가 개편이 필요하겠다.

(4)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사 개개인 전문성과 상황판단 능력은 더더욱 요구되는 현실속에서 병사 개개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병영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국방개혁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과거만을 답습하고 반복해서는 21세기 정보문명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강군이 나오길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 군이 국방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군이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의 군대를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군 구조적 변혁을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방부(2014),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이종진(2013), “한국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조용갑(2004), “국방정보화분야 지식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